

○ 副統領制

○ 民主黨新設

權限：大統領補佐・職務代行 및 承繼 (§ 68 ⑤), 國務會議 出席發言權 (§ 89 ④)
選舉：直選・同一티켓 등 (§ 89 ①~⑦), 補闕選舉 등 (§ 70 ①~④)
任期：4年 (§ 72 ①), 기타：彈劾 (§ 66 ①), 權限代行 (§ 73 ①)

- 國務總理를 두더라도 副統領制와 같은 效果發揮可能 (다만, 大統領 闕位時에 는 補闕選舉를 실시할 때까지 國務總理가 權限代행을 하게 되므로 다소 未洽)
- 우리 憲政史上 副統領制 보다 國務總理制에 더 익숙해 있음 (副統領制은 12年 정도, 國務總理制은 30餘年)
- 副統領에게 추종자가 많을 경우에는 大統領과의 알력이 생겨 大統領制의 長點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副統領의 政治的 기반이 미미할 경우에는 大統領의 背後에 가려 차기 후보자로서의 이미지 부각에 失販할 가능성도 있음

○ 副統領制의 長點

- 大統領 缺位시 국가권력의 空白防止
 - 經驗있는 後繼者의 養成
 - 大統領의 權限을 일부 委任하여 과중한 業務負擔 輕減
 - 大統領과 副統領의 地域 등을 安배하여 지역 간 階層間 違和感 解消可能
- 短 點
- 副統領에 대한 업무부여에는 한계가 있어 閑職이 되며 (특히 單院制를 採擇한 우리나라에서는 上院議長의 地位도 부여할 수 없음)
 - 國務總理와 國務會議制度를 병행할 경우 副統領의 地位 設定이 困

○ 우리나라 가 1 共和國 당시 副統領制 운영 경험

- 李始榮 初代 副統領과 金性洙 副統領은 選出 初에는 李承晩 大統領과 協調的 관계에 있었으나 나중에 大統領과의 意見 齟齬는 彼の 任期前에 辭任한 것으로 政治的 不安을 招시켰음

- 曺 泰英 副統領은 大統領과 親善한 關係를 유지하였으나 政治的으로 아무런 役割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大統領 後繼者로서는 淸純된 사실도 없었음

- 張 勉 副統領은 野黨 所屬으로 大統領과 극심한 갈려가 있었음

- 이 기봉의 경우 大統領 後繼者로 淸純되었으나 이는 李承晩 大統領의 老齡으로 任期中 有故의 대비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副統領으로 후대된 것이며 副統領 職이 後繼者 養成에 効果적이기 때문인 것은 아님 (副統領 후대 전이 이미 自由黨內 實權者의 地位가 鞏固되었음)

○ 우리나라와 같이 惡劣한 政治 風土에서는 副統領이 多數의 추종세력을 얻을 경우 大統領 除去 作業이 나서 (彈劾 등) 實력의 素地가 大分함

○ 單院制과 國務總理制을 채택한 12 家에서는 副統領을 設 例가 없음 (오늘날 많은 大統領制 國家에서) 副統領 制 대신 國務總理制을 채택하여 (大統領 職位 缺位 時에만 의미 있는) 1 政 空白의 防止와 아울러 院內 閣制의 長久인 責任 政治를 실현하고 있음 (2)

